

CIS 지역

■ 우크라이나, 금융·교역상 혼란 심각

- 달러화 사재기로 외환부족 사태 악화
- 바이어들의 관망 자세로 수입 위축

- 대통령 선거 부정 시비로 소요사태에 휩싸여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금융질서가 교란되고 이것이 교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크라이나 업체들과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됨.
-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은행들의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른 현지화 환율의 상승이 예측되자 많은 수입업체들이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구매를 중단하거나 미루면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소요사태 초기인 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의 기간동안 달러화 지불준비금이 1.6%(163.8백만불)나 감소했다고 발표 한바 있음.
- 우크라이나 은행들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정치적 혼란에 따라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달러화 및 유로화를 사재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정부의 외환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암시세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음.
- 최근 2~3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외환의 암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심각한 정치적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외환의 암거래가 다시 성행하기 시작했음.
-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현지화(그리브나)의 공식환율은 달러당 5.30~5.35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암시세 환율은 수도인 키예프에서 달러당 6그리브나 이상, 도네츠크 등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달러당 7그리브나 이상으로 올라 갔다고 전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유통 업체들은 환율인상 추세를 감안하여 수입물품의 유통가격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가 계속하여 감소하게 되자 하루에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외환을 1천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해약자에게 현지화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시켰음.
- 한편, 소요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들은 대체로 정상근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동요에 따라 통관 등의 업무가 교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우크라이나 세관에서 수입물품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들은 물자의 적기 공급에 애로를 겪기도 하며, 전시회용 샘플을 적시에 통관하지 못해 상담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문의처 : 키예프무역관 신남식 kotraiev@gt.com.ua)